“담배회사 환경캠페인은 소비자에 환경파괴 책임 전가하는 것”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학술대회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사회공헌활동 숨은 의도 경계해야”

담배회사가 담배꽁초·해양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 환경 보호 활동을 벌이는 것이 담배로 인한 환경 파괴를 소비자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런 환경 캠페인을 통해 담배 회사 평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매출을 증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학술포럼에서 ‘담배회사의 그린워싱(green washing)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런 주장을 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green’(녹색)과 ‘whitewashing’(눈가림)이 합쳐진 말이다.

이 센터장은 담배 회사들이 해양 쓰레기 줍기나 담배꽁초 줍기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 등 캠페인을 진행하지만, 그 배경에는 담배 회사의 평판을 높이고 정책 입안자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매출을 증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담배회사의 그린워싱 전략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투자자, 주주, 언론, 국민에게 담배의 환경 파괴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담배 회사에 환경파괴의 책임이 있는 만큼 환경을 살릴 비용을 요구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5조 3항은 담배회사로부터 담배 규제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며 담배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의 숨은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WHO 등에 따르면 담배는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위협한다.

담배 생산을 위해 연간 6억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며 220억 리터(ℓ)의 물이 소비된다. 흡연으로 방출되는 8400만t의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야외 흡연시에는 흡연자에게서 2.6m 떨어진 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70% 상승한다. 2020년 담배용품 수거량은 7만2342개에 달하며 바닷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는 421만여개나 된다.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궐련 담배의 필터 1개에는 1만2000개의 가는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있으며 자연 분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금연의 날의 주제는 ‘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담배, 그 시작과 끝은 모두 환경 파괴입니다’라는 표어를 통해 담배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드러냈다. 기념식에서는 담배로 인한 환경 위협을 소개하는 영상과 샌드아트를 활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 씨의 영상과 올해 첫 금연광고인 ‘전자담배’ 편도 소개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담배는 만들어지는 첫 순간부터 환경을 파괴하고 흡연자의 개인 건강을 해치는 한편, 주위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문제를 야기하고 버려진 이후에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금연이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연합뉴스

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지원

환경부, 규제개혁 TF 가동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30일 출범시켰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 등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이번 조직을 설치했다.

신설 조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일괄(원스톱)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기업 등의 건의과제 중점 발굴·개선 외에도 장기간 운영중인 기존 제도·정책의 재검토, 연구용역 등을 통한 자체 과제 발굴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불편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후위기 대응할 후보 선택하세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북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광주시 북구청사 앞에서 ‘기후 선거’ 촉구 캠페인을 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소비전력 적은 노트북에 ‘프리미엄 환경표지’

환경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전력량이 적고 핵심부품 공급이 5년 이상 보장되는 노트북은 앞으로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붙여 ‘친환경’ 제품이라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을 현행 4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등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 새롭게 오른 것은 노트북, 컴퓨터용 모니터,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샴푸·린스·바디워시, 의류 등이다.

노트북은 ▲연간 소비전력량이 국제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수준 ▲핵심부품인 메인보드 공급 5년간 보장 ▲겉면(하우징)에 재생합성수지 10% 이상 사용 ▲재활용 종이·펄프로만 포장완충재 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컴퓨터용 모니터는 연간 소비전력량이 국제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수준(27인치 기준 45.8kWh)이어야 한다는 점 등은 노트북과 유사하나 포장완충재 관련 항목이 빠지고 5년간 공급돼야 하는 핵심부품이 ‘액정표시장치(LC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로 규정됐다.

세탁·주방용 세제는 모든 원료를 생분해성물질로 쓰고 바이오매스 기반 계면활성제를 50% 이상 사용하는 등의 기준을 지켜야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달 수 있다. 샴푸·린스·바디워시는 세제와 기준이 유사한데 바이오매스 기반 계면활성제 사용률이 70% 이상으로 더 높다. 의류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사용률이 50% 이상, 종이 포장재 폐재(폐지) 사용률이 80% 이상이어야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붙일 자격이 생긴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166개 품목) 중 생활밀착형 제품(58개 품목) 전체로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에는 새 프리미엄 환경표지 대상 품목의 일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노트북과 컴퓨터용 모니터는 소비전력량이 적은 순으로 상위 30% 안에 들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안엔 텀블러 환경표지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김형호 기자 khh@

임정교에서 매월동까지 ‘바람길 숲’

남구, 2.2㎞ 구간 조성…9월까지 사업비 5억원 투입

광주시 남구가 효천1지구 일원에서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에 산재한 숲을 연결해 차가운 공기를 끌어오는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남구는 오는 9월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효천1지구 임정교에서 서구 매월동 방향으로 2.2㎞ 구간에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람길 숲은 낮과 밤의 기압차를 이용,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해 공기순환을 유도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숲이다.

현재 효천로 인근에는 보행로 3.5m와 자전거 도로 1.5m를 합한 폭 5m 가량의 통행로가 조성돼 있으며, 통행로 좌우에는 기존에 듬성듬성 심어 놓은 나무와 완충녹지가 조성된 상태다. 이 통행로 양쪽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산들바람이 유입되는 숲 형태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새로 심는 나무는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권장하는 조림 수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홍가시 나무를 비롯해 은목서, 에메랄드 그린, 황금사철 등 7종 2만 10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남구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입해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와 효천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임정마을 방향 효천로 일부 구간에 바람길 숲 조성 1차 사업을 진행했다.

남구 관계자는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맑은 공기와 숲이 어우러진 그린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서구, 폐렴구균 무료접종
65세 이상 어르신에 1회 지원

광주 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 무료접종을 1회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뇌수막염, 심내막염은 치명적이며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접종 대상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 다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65세 이전에 폐렴을 접종한 경우에는 과거 접종 백신에 따라 접종 가능 유무가 결정되므로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해야 한다. 접종은 서구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사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1회 접종만으로 폐렴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